

**【오카야마에 있는 교바시 다리에서 세토내해로 크루즈 취향】**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4월 26일 「오카야마 교바시 크루즈」가 운항 개시됩니다.

이 유람선은 봄, 여름, 가을의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와 함께 병행하여 운항되며 오카야마에 있는 교바시와 세토예술 무대 중 하나인 이누지마와 세토우치시의 우시마도를 연결합니다.

교바시는 일급 하천인 아사히 강에 있는 다리로서, 한때는 산요 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로 성하마을 오카야마의 발전 기점이었으며 또한, 약 60년 전까지는 선착장도 있어서 오랫동안 물류의 거점으로서 번영했었습니다. 현재는 복고풍 다리위를 노면 전차가 달리고 매월 첫째 일요일에는 다리 기슭에서 교바시 아침 시장이 열립니다.

오카야마의 현황을 보면 유동인구가 JR 오카야마역 앞 주변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 도시 전체에 흐름을 만들어 회유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카야마성과 고라쿠엔, 오모테초 상가에 있는 「옛 성하마을 지역」의 새로운 매력 만들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올 가을에는 오카야마성, 고라쿠엔 주변을 중심으로 오카야마 예술교류 2019를 가을의 세토 예술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합니다.

세계적으로 세토내해가 주목받은 가운데 교바시 크루즈 취향은 세토예술과 오카야마 예술교류라는 2개의 국제 현대아트전이 항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카야마를 방문하게 되고

오모테초 상점가를 포함한 도시의 회유성이 향상되어 오카야마 전체의 매력과 활력에 큰 공헌을 할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 년 가을에는 교바시 근처의 오모테초 3 초메 지역에 오카야마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거점이 되는 오카야마 예술창조극장(가칭)을 오픈할 예정으로 현재 열심히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 문화, 예술 등 도시만들기에 종사하는 다양한 단체의 노력과 우리시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풍기는 매력있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시켜 나가하고자합니다.